

★ 법률 개정안 2의 지지 발언 ★

2

학교, 의료 및 공공 안전 및 California의 재정적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발의안 2에 찬성 투표하십시오.

2014년 유권자들이 도입한 California의 비상기금은 정확히 지금과 같은 순간이 발생한다면, 즉 불과 몇 년 만에 주 정부 예산이 1,000억 달러 흑자에서 50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 경제 상황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발의안 2는 해당 기금을 강화하여, Sacramento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른 예산 책정 실패로 인하여 학교, 의료, 공공 안전 분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법률 발의안 2에 찬성 투표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다음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 때를 대비하여 California가 말만 앞세우는 적립금 정책이 아닌 실제 재정적 완충 자금을 확보 가능하도록, 일반기금 세입의 주 적립 의무 비율을 기존 10 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두 배 확충합니다.
- Sacramento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과도한 지출 방지—세입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본 법률 발의안은 주 정부가 일시적으로 확충된 세입을 California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의 새로운 지속성 지출에 투입하기 보다 더 많이 적립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정치인들이 더 현명한 판단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합니다.
- 예산 적립금이 확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교육 재정 지원이 주 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 주 정부의 재정적 안정성 강화—연방 정부가 의료 및 식량 지원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를 삭감하려는 향방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본 법률 개정안은 California 주민들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을 축소하기보다는 주 정부가 이러한 손실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정당만의 대안은 아닙니다. 주 의회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및 개빈 뉴섬 주지사는 모두 법률 발의안 2를 지지합니다.

California주자체의 초당적 기구인 주 의회 분석관실은 주 정부가 현재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했습니다. 법률 발의안 2는 그러한 권고 사항을 반영한 대안입니다.

California 전문 소방관 협회, 중소기업 단체들 및 Xavier Becerra 전 보건부 장관과 함께 법률 발의안 2를 지지하십시오. 이들은 예산 적립금을 사용하기가 충분치 않을 때 의료 클리닉이 폐쇄되고, 학교 재정이 중단되며, 필수 서비스가 축소되고, 화재 예방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을 다른 누구보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비상금을 모아두는 일은 California의 가정들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California의 주 정부 역시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법률 발의안 2에 찬성 투표하여, 다음 번에 경기 불황기에 접어들게 될 때 California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YesOnProp2.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rrell Roberts, 회장
California 전문 소방관 협회

Jesse Gabriel, 의장
California 주 하원 예산 위원회

Maria S. Salinas, 최고 경영자
Los Angeles 지역 상공회의소

★ 법률 개정안 2 찬성 측 주장에 대한 반론 ★

법률 발의안 2의 찬성 측은 이 대안이 재정적 책임성 및 교육, 공공 안전, 의료 분야에 대한 자금조달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유권자 여러분이 믿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 대안을 도입한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예산 적립금 확충 방안이라며 찬성을 했던 동일한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주 정부의지출 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 5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적립을 유예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alifornia 법률 개정안 2는 납세자가 헌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주 정부의 저축 계좌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발의안 2는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을 줄어줄게 만듭니다.

헌법상의 세출 한도를 초과하는 주 정부 세입은 납세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법률 발의안 2는 정치인들이 세출 한도에 더 이상 산정되지 않는 예비금 계좌로 수십억 달러를 이전할 수 있는 치명적인 허점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California 주민들의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법률 발의안 2는 보건 의료, 교육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찬성 측은 법률 발의안 2가 교육, 의료 및 공공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해당 법률 발의안은 해당 우선순위 항목 중 어디에도 신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Sacramento 정치인들이 매년 얼마나 지출할지 계속 결정하게 되며, California 시민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발의안 2는 정치인들이 특정 이권을 챙기려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Sacramento는 또 다른 예산 꿈수나 예산 낭비를 더 이상의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California 주민들이 이미 승인한 헌법적 예산 한도 내에서만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재정 규율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발의안 2에 반대표를 던지세요.

David Tangipa, 부위원장
California 주하원 예산 위원회

Carl DeMaio, 위원장
리폼 California

Steven Choi, 부위원장
주상원 선거 및 헌법개정위원회

★ 법률 개정안 2 반대 발언 ★

법률 발의안 2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기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길입니다!

법률 발의안 2는 Sacramento 정치인들에게 비자금 주머니를 만들어 주는 꼴입니다

1978년 California 유권자들은 주 정치인들에게 지출 한도를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압도적인 표로 주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정치인들은 그날 이후로 그 지출 한도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법률 발의안 2는 정치인들에게 유권자의 손으로 세운 지출 한도를 무력화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꼴입니다. 정치인들이 철면피가 되어 '비상자금' 이라고 포장하는 그것은, 실제로는 거대한 그들만의 비자금 주머니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은 상습적인 예산 낭비의 구멍을 계속 메우기 위해 이 새로운 비자금 주머니를 자유롭게 빼내어 쓸 수 있습니다.

법률 발의안 2는 주민 여러분의 세금 환급금을 뺏아앗 가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California 주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주 헌법은 세입이 지출 한도를 초과할 때 주민에게 세금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발의안 2는 정치인들이 주민 여러분의 세금 환급금을 받을 기회마저 완전히 박탈하도록 온갖 허점과 회계 꼼수를 만들어 냅니다.

법률 발의안 2는 제멋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을 더욱 부추깁니다

California의 주 예산은 2018년 이후 76퍼센트나 폭증하기에 이르렀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주 정부의 규모는 무려 40퍼센트나 커졌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40퍼센트 더 많은 서비스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핵심 공공 서비스들은 모조리 도려내진 것이 현실입니다. California 주민들은 더 많이 세금을 내지만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그에 턱없이 못미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 정치인들이 주민 여러분의 혈세를 선거 캠프 후원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전시 행정 사업과 뒷거래 수의계약에 모조리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업에 쓰여야 할 얼마 되지 않는 예산마저도, 부정부패와 방만한 예산 낭비로 인해 줄줄 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인들의 지출

한도를 없애버린다면, 앞으로 훨씬 더 막대한 예산 낭비를 똑똑히 지켜보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 발의안 2는 우리 예산의 변동성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경기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주 정부는 다음 경기 불황기가 닥쳤을 때 주민과 기업들이 세금 인상, 필수 서비스 삭감, 예산 파탄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재원을 두둑이 채워두어야 마땅합니다. Sacramento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또 다른 꼼수 따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Sacramento에 필요한 건 이미 정해진 규정을 지킬 기강과, 없는재원을 제멋대로 끌어다 쓰는 해이한 행태를 바로잡는 일뿐입니다. 법률 발의안 2는 우리 예산의 변동성을 가중시켜 재정 위기 리스크를 더 높입니다.

공신력 있는 재정 감시 단체들마저도 법률 발의안 2에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 발의안 2의 실질적인 찬성 세력을 똑똑히 보십시오. 예산을 수도 없이 말아먹었던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과 정부 계약을 따내려는 특권 세력들뿐입니다! 법률 발의안 2가 투표용지에 올린 지 24 시간 이내에, 이를 지지하는 찬성 세력 정치인들은 주예산 적립금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예산금 집행을 곧바로 중단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법률 발의안 2의 반대 세력은 리폼 California(Reform California)와 투명성 재단(Transparency Foundation)을 비롯한 정부 책임성과 투명성 감시 단체들입니다. California 주민들에게는 개혁의 가면을 쓴 또 다른 예산 꼼수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서는 정직한 예산 편성, 낭비성 지출 개혁 및 실질적인 지출 제한이 필요합니다.

법률 발의안 2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David Tangipa, 부위원장
California 주하원 예산 위원회

Steven Choi, 부위원장
상원 선거 및 헌법 수정 위원회

Carl DeMaio, 위원장
리폼 California

★ 법률 개정안 2 반대 발언에 대한 반론 ★

법률 발의안 2는 California 주민들을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반대 세력들은 주 정부에 필요한 건 새로운 수단이 아닌 '규율' 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주장한 '규율' 의 걸 테두리에만 의존한 결과, California는 1,000 억 달러의 흑자 뒤에 곧바로 5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정확히 법률 발의안 2가 예방하려고 하는 경기 변동의 악순환을 일컫는 실태입니다. 이 법률 발의안 2가 아니라 바로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 하고, 의료 서비스 축소, 공공 서비스 삭감, 세금 인상이 초래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Sacramento 정치인들의 과도한 지출 전면 금지하기—이 법률 발의안 2로 인해 Sacramento에 지출할 새로운 재원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 법률 발의안은 주정부의 예산 적립금 의무를 두 배로 늘리고, 세수 급증이 발생할 때는 새로운 지출을 하는 대신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학교, 공공 안전 및 의료 서비스 보호하기—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 때 법률 발의안 2는 학교, 병원, 보건소, 공공 안전 예산을 삭감 대상 1 순위로 몰아세우는 대신 이들을 위한 재원을 보호하도록 지원합니다. 반대 세력들이 주장하는 이론적인 '환급' 은 재원을 예치하는 것 보다는 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50년 이내 케케묵은 회계 꼼수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발의안 2는 그러한 케케묵은 회계 꼼수가 부리는 허점을 메우고 실질적인 20퍼센트 비상 적립금을 의무화합니다.

일명 '감시자'라고 일컫는 세력들의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California의 공식 초당파 지구인 입법분석국(LAO)은 경기 변동 상황에 따른 재정 불안정 주기를 막기 위해 주 정부의 비상 적립금을 확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California 소방관 협회, 중소기업 대면 단체, 지역 보건소, 병원 및 교육계 리더들이 법률 발의안 2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이유입니다. 이들은 비상 적립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률 발의안 2를 찬성하는 공식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www.YesonProp2.com

Dr. Linda Darling-Hammond, 박사, 회장
California 주 교육위원회

Carmela Coyle, 최고 경영자
California 병원 협회

Francisco J. Silva, 최고 경영자
California 1차 진료 협회